

● 전기협회, 창립 제49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26일 김무영 상근부회장, 오재형 전무이사를 비롯한 협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49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협회는 지난 1965년 3월 26일 창립 이래 50여 년 간 전기업계의 발전과 화합을 선도하기 위해 전기계 중심 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히 임해 왔다.

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연구·관리 △KEPIC의 개발 관리 △전기부분 표준품셈의 제·개정 및 관리 △전력신기술 지정심사 △원자력 국제 표준화 사업 △전기 기능인력 양성 △장학사업 △‘전기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력홍보 및 도서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김무영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로 다가올 것인 만큼 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협회 임직원 모두 역량을 키우는 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협회 퇴직 임원들을 초청, 지난해 실적과 올해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협회는 미래 50년을 대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퇴직 임원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했다.



● 전기협회, 2014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9~11일 개최

‘2014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이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충북 제천에 소재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전기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은 ‘제49회 전기의 날(매년 4월 10일)’을 기념해 기술기준의 제·개정사항, 국제표준 도입 현황, 신기술·신공법 개발, 전기안전 기술 등 관련 규정을 전기산업계에 널리 홍보하고, 현안사항을 도출해 전기설비 및 공중의 안전과 전기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9일 개최되는 개막행사에서는 대한전기협회 조환익 회장(한전 사장)의 특별강연과 함께, △Success model on us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to National Environment(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 Teigeler 위원장) △저압전기설비의 국제표준화 직류화에 따른 전기안전(일본전기설비학회 Takahashi 부회장) △전력수급계획의 발전방향(전력거래소 김권수 처장) 등의 특별세션이 이어진다.

또 전기협회와 한국화재보험협회 간에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된다. 10일에는 전기기술, 발전기술, 한국전기규정(KEC), 수력·양수 발전설비 등 각 세션별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한전기학회 기술기준연구회, 신재생에너지기술 & 표준화 워크숍, 신기술·신제품 기술설명회, 한·독·일 전기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 중 한·독·일 전기기술 세미나에서 토의되는 주요 내용은 제천에 건설을 추진 중인 한국형 전기설비 통합실증단지 설계 및 시공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KEPIC처, ‘e-Newsletter’ 창간호 발행

대한전기협회 KEPIC처가 이달 첫 주 ‘e-Newsletter’ 창간호를 발행한다. e-Newsletter는 KEPIC 운영협의회, 정책위원회 및 산하 기술위원회 위원, 인증업체 담당자 등 KEPIC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 4회 분기별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된다.

e-Newsletter는 △Kepic(KEPIC 동향) △Event(주요 공지사항) △People(산·학·연 전문가 인터뷰) △Industry(산업계 동향) △Culture 등 KEPIC의 앞 글자를 이용해 총 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창간호에는 2014년도 KEPIC 개발 계획, KEPIC처 소개, 4~6월 KEPIC 교육 일정, 발전소 건설 KEPIC 적용 워크숍, KEPIC 유지정비 세미나 결산, KEPIC처 김종해 처장 인터뷰, 올 1~3월 인증 업체(기관) 자격 취득 현황, KEPIC 주요 질의 및 응답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한편, KEPIC처는 KEPIC 구매, 질의 서비스를 강화해 외국인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문 홈페이지도 이 달 중 오픈할 예정이다. 기존 영문 홈페이지와는 달리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외국인 사용자가 KEPIC를 쉽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협회-한전KPS, KEPIC 유지정비 세미나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한전KPS와 공동으로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충남 대천 웨스트피아에서 '2014년도 KEPIC 유지정비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KEPIC 유지정비 세미나에는 전기협회 김무영 상근부회장, 한전KPS 김 오 본부장 등 내빈을 비롯한 200여 명의 발전설비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김무영 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자리가 발전설비 유지정비 관련 최신의 고급기술을 공유하고, KEPIC의 발전방안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력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정비하는 각종 기술·기법의 현주소를 제시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했다.

김운재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1일차 강연에서는 △압력기기 및 배관 정비 표준(KEPIC-MMR/MMB) 적용사례(이용근 한전KPS 책임) △용접 전원 특성과 가스의 역할(이진희 SK건설 박사) △KEPIC의 현황과 적용(안영태 대한전기협회 실장) △표준 500MW 석탄화력 발전소의 출력증강 및 성능향상 타당성 검토(정용근 두산중공업 부장) △발전설비 진동기반 상태감시 기술(손석만 전력연구원 박사) △용접재질 및 용접결함 손상해석(최병학 강릉원주대 교수)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최병학 강릉원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2일차 발표에서는 △보일러/배관의 위험도 기반검사 적용(송기욱 전력연구원 책임) △탈질설비 문제점 분석 및 대책(오병진 한전KPS 수석) △오스테나이트계 보일러 튜브 용접부 초음파탐상기법(김종성 서부발전 부장) △해의 발전소 O&M 사례(박석일 한전KPS 부장) 등이 소개됐다.



● 전력기술교육원, 한전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대한전기협회 전력기술교육원이 지난달 21일 한전 전력계통본부가 개최한 '송변전 무고장 전체회의 및 2014년 사업계획 공유 워크숍'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송변전 무고장(TFTS, Trouble Free Transmission & Substation) 전체회의는 한전 전력계통본부가 △무고장 공급의 확산 및 사업소장의 관심도 제고 △TFTS 활동실적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 △TFTS 관련 사업소 현안문제 및 관심사항 수렴 경영 반영 등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서 전력기술교육원은 그동안 한전의 전력사업발전에 적극 협조해 왔고, 특히 송변전분야 현장 기술인력 양성에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고장예방과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 전기협회, 전력신기술 심사위원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27일 전력신기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희민테크코리아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한 '스마트마커와 탐지기를 이용한 지중 전력시설물 관리기술(기술)'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희민테크코리아가 신청한 기술은 지중 전력시설물에 설치된 스마트마커 탐지기를 통해 지중 전력시설물의 위치를 탐사하고 스마트마커의 내장 입력된 데이터를 각종 주변 장치와 각종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유지보수 관리, 재해시 응급대응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한편, 전력신기술 지정제도는 1995년 전력기술관리법이 입법화되면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기술 인증제도이며, 전기협회가 1997년부터 인증을 위한 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